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복지서비스 욕구

전 은 지¹ · 하 정 희² · 김 지 혜³

¹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 ²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
³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Parenting Experiences of Welfare Service Needs of Mothers with Visually Impair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During COVID-19 Pandemic

Jeon, Eun Ji¹ · Ha, Jung Hee² · Kim, Ji-Hye³

¹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²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³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Doctoral student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the insight in the parenting experienc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visual impairm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 To explore the parenting experienc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visual impairments, 8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data was analyzed by the CQR method. **Result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rearing experience of mothers were 'limitations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nd 'changing roles in rearing children. Second, the changed domains by visually impaired elementary school children during the COVID-19 were 'internal changes of children in COVID-19' and 'environmental changes of children in COVID-19. Third, the domains of welfare service need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visual impairments were 'the desire to support learning sites for visual impairments' and 'the desire for social welfare services.' **Conclusion:** We sought to gai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and particular requirements of mothers with visually impaired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and this article could be provide the practical implication such as counseling, psychological services, and welfare assistance for the post-COVID-19.

Key Words: COVID-19, Visual impairment child's mother, Parenting experiences, Welfare service, CQR

¹ 1st Author: Jeon, Eun Ji. e-mail: nuriandsanta@hanmail.net

² Corresponding Author: Ha, Jung Hee.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e-mail: hajung366@hanyang.ac.kr

I. 서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UNICEF, 2020).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등의 경우 지원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이송희, 홍승주,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초·중등학교의 휴교와 등교 연기, 반복되는 비대면 등교 수업으로(최윤경, 2020)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초등학생이 된 아동과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초등전이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정정호 외, 2021), 아동의 학교적응은 유예되었다. 학교 외에서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기 힘든 장애청소년은 학교 운영 중단으로 또래관계, 문화생활 참여, 급식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된 접속 환경이나 장비 등이 구비되지 않아 고충을 겪었다(전근배, 2020).

장애아동은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유승주, 김용섭, 2017), 코로나19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제한하여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집단생활로 구성되는 보육시설과 각급 학교에서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됨에 따라(교육부, 2020; 보건복지부, 2020), 장애아동의 경우 가족과 아동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집중적 지원 시기임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재활치료 등 대면을 통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했고, 면대면 서비스의 이용 중단으로 인해 장애아동 가족 내에서 돌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2020; 이송희, 이병화, 2020).

아동 돌봄을 가정에서 오롯이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지역사회와 국가가 분담했던 가정의 돌봄에도 과부하가 발생하였다(육아정책 연구소, 2020). 부모는 자녀의 비대면 수업 지원과 학습 전반에 걸쳐 깊숙한 관여를 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학습 관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더 커지게 되었다(Y. Kim et al., 2021).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Brown, Doom, Lechuga-Peña, Watamura, & Koppels, 2020; Marchetti et al., 2020).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령기의 부모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경험을 구체적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 대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이

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 주제는 크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 돌봄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돌봄 모두 주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다(김경애 등, 2020; 문설화 등, 2021, 이보람, 이강이, 2021,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초등학생은 코로나19 이전 온라인 학습 체험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연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김영선 외, 2021).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특히 전업 주부의 우울감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김영란, 2020; 이은환, 2020), 돌봄의 재가족화는 주 양육자인 여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을 위해 대체로 여성들이 휴가 및 연차, 유연근무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에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양육을 위한 무급휴가 사용에 대해 남성은 8.1%에 불과하나, 여성은 42.9%로 34.8%라는 높은 차이를 나타냈고,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비율은 남성은 31%인 반면, 여성의 경우 69%로 2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였다(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족들이 함께 가정 내에서의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가사분담의 성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도 맥락을 함께 한다(김지현, 최영준, 2021).

특히 어머니는 주 양육 역할 수행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담이 더 커졌다(김영선, 2021). 코로나19 시기의 부모는 다양한 변화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증가로 인한 일상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나(은기수, 2020), 한편에서는 지역사회 및 기관에서 지원받았던 보육과 기존 일과를 동시에 수행해야 만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하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주해란, 한아름, 2021).

시각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교육, 치료, 재활, 보호 등 자녀의 전반적 영역에 대해 도움을 주며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Hamner & Turner, 1990), 이들은 시각장애자녀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실재이며 한 몸처럼 역할을 수행하여 자녀의 일정과 교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간다(전은지, 하정희, 2022). 이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예상치 못한 장애아 출현으로 인한 스트레스 원인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의 특성과 독특한 욕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심각성이 높을 수 있으며(강시열, 2000),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돌봄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

자녀 양육 상황에서 늘어나는 가사노동, 양육에 대한 좌절감 및 불안,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가중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 신체적 어려움과 부담을 반복하면서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되고 있다(Choi & Moon, 2016). 반면, 양육효능감의 긍정 정서 경험 및 양육특성 등 양육자가 느끼는 정서·심리적 특성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Choi, 2018).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잘해내고 있다는 믿음이 유지될 때,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배은정, 박경자, 2021).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돌봄자가 겪는 어려움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했음(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에도 실제로 자녀양육에 있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고,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을 양육한 어머니들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따른 욕구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는 거의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어머니에게 과도한 양육 책임 부과로 다양한 문제가 예견되는 가운데 자녀양육이란 어떤 경험을 의미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의 실질적이고 주관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자녀를 둔 8명의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과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로 인해 코로나19 시기의 어머니가 시각장애아동의 양육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시각장애’, ‘어머니’와 ‘아동’의 심리 사회적 경험과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각장애 가정과 양육을 지원하는 어머니를 위한 심리 사회적·사회복지의 실천적·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토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 유형인 유의적 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Miles, Huberman & Saldana, 2014). 코로나19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서비스 욕구를 탐색하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시각장애 아동 자녀의 어머니,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로 두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를 연구 참여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의 표집 방법으로 공고문 게시 및 눈덩이 표집(Snow bal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의 소개로 지속적으로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Gall, Bong, & Gall, 1996).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으로는 S시 M학교 및 시각장애인 어머니 커뮤니티에 본 연구에 대한 공고문 게시 하였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8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참여자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면밀하게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묘사할 수 있는 자일 것을 제안(Hill, Thompson & Williams, 1997) 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는 S시 소재의 시각장애복지관에서 약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충분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위한 적합성과 충분성 모두를 고려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의 적합성이란 특수한 연구 주제에 대한 알맞은 개인정보가 활용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며, 충분성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자료가 충분히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까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Estarbrooks, Field & Morse, 1994).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의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여자	나이	자녀 학년	자녀의 장애정도	자녀의 진단
참여자 1	46세	5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2	43세	5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3	41세	4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4	41세	2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5	46세	3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6	40세	3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7	41세	5학년	전맹	선천적
참여자 8	47세	4학년	전맹	선천적

2. 연구자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평정팀은 총 3인으로 구축하였다. 이 중 1인은 상담심리 박사 과정생이며, 2인은 사회복지 전공 박사 과정생이다. 평정팀의 2인 모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6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심리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합의적 질적 연구(CQR)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문을 선정할 것을 권하고 있어 (Hill, 2012), 본 연구의 감수자 1인은 오랜 기간 상담심리학의 전문가이며 교수로서 다수의 논문 및 합의적 질적 연구의 풍부한 지도 경험을 가진 자 1인으로 선정하였다.

3. 면접 질문지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요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는 상담심리학 교수에게 1차적인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친 후, 2차적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이용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탐색적인 질문을 선정하여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에게 검토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다시 감수자의 검토를 통하여 최종 질문지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심층면담 질문 내용

1)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 아동돌봄으로 양육부담의 가중을 겪은 적이 있나요?
- 전적인 돌봄 책임으로 심리적 소진이 느껴졌나요?
- 가족 간 접촉시간 증가가 어떠한 경험을 주었나요?
- 코로나19에 되돌아본 장애아 양육과 교육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나요?
- 코로나19에 어머니의 정서변화 및 지지체계는 무엇이었나요?
2)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양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게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부모 관계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가정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 및 숙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3)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이후 지역 사회 서비스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고 바라셨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기관 휴관이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중단을 경험했나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겪었나요?
-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나요?

4. 연구 절차

1) 자료 분석

자료 분석 과정에는 본 연구의 3명의 연구자가 평정팀을 이루어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과정인 축어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정팀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회기의 자료 처리를 위한 분석 과정에 참여하였다. 우선, 3명의 평정자는 개별적인 자료 분석 실시기간을 가진 후, 면접 질문지와 문헌 탐색을 통하여 유사하게 반응하는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묶고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연구자 별로 서로를 평정하여 각 영역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내용들을 분류한 각 영역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후 가장 부합한 영역 목록 선정에 따라 자료가 충분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한 8개의 사례의 영역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정자들은 반복적으로 조율과 합의의 과정을 가졌으며 핵심 내용을 제외한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영역의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 개의 주제와 여섯 개의 영역을 합의하여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전사 자료들의 영역들이 평정팀이 만장일치로 합의될 때까지 핵심 개념의

구성 과정을 거쳤다. 이후 교차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주제에 가장 부합한 핵심 범주를 선정하였다. 이때 구성된 모든 범주들이 각 범주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하위범주 과정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열두 개의 상위범주를 합의 후 선정하였으며, 최종 개념범주를 바탕으로 각 하위범주에 따른 빈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범주의 명칭은 ‘일반적’, ‘전형적’ 그리고 ‘변동적’으로 표시하였다.

2) 자문 및 감수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석한 심층면담 자료가 원자료의 주요한 내용 중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주제에 따른 영역과 상위범주 및 하위범주의 용어처리가 원자료의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 반영하면서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각 주요 개념이 구성되어 있는 영역 및 범주에 부합하여 빈도 확인과 전반적인 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다수의 질적 연구 감수의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생의 1차 감수 및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를 평정팀이 논의하며 수정 보완하고 자료처리의 적합성을 고려한 영역 합의가 원만히 수행되어 주요 영역을 결정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교차분석을 반영한 내용의 2차 감수 후 평정팀의 논의 끝에 잠정적인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최종 감수자의 질적 연구에 대한 감수로 심리와 복지체계에 기반을 둔 피드백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의 평정팀의 논의 끝에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와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세 개의 최종적인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표 3>, <표 4>와 <표 5>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3>은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이며, <표 4>는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 <표 5>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이며, 이에 따른 결과를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의 빈도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이 제시한 빈도수 또는 백분율(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로 나타내기보다는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 8명 또는 7명일 때에는 ‘일반적’, 평균 4명 이상 6명 이하가 보고 하였을 때는 ‘전형적’, 4명 미만으로 보고했을 때는 ‘변동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3>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시각장애아 동을 위한 교육의 한계	시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의 부재 및 어머니의 필수적 관여	학부모 조력이 필수적인 원격수업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증폭됨	1,3,4,5,6,7,8 일반적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워 점자교재 제작이 지연으로 시의적절한 교육지원이 어려웠고 엄마가 교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1,2,3,4,6,8 전형적
	시각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됨	일반학교에서 시각장애아동은 감염취약자라는 이유로 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아 등교하지 못했으며, 외부활동에서도 주변 시선의 불편함을 느낌	1,3,4 변동적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어려웠으며, 부모의 생계로 인해 아이는 방치됨	5,7 변동적
양육에 작용한 변화 요인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자녀는 눈 역할을 대신하는 엄마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엄마는 양육에 대한 심적 부담이 가중됨	1,2,3,4,5,6,8 일반적
		코로나19로 사회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소외감이 커짐	2,4,8 변동적
		아동의 발달 퇴행이 우려되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장소에도 재활치료를 받으러 감	8 변동적
	자녀의 장애에 대한 걱정이 증폭됨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열과 안압 상승이 장애를 더 악화 시킬까봐 걱정하고 염려함	1,2,3,8 전형적
		코로나19로 장애유형 중에서도 시각장애가 더 취약계층임을 느낌	2,3,4,8 전형적
		자녀의 미래와 부모로서 자신의 삶 모두를 걱정하게 됨	1,2,3,4,7,8 전형적
	재발견한 사회적 지지의 경험	시각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엄마들의 네트워크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가족의 지원이 엄마로서 굳건히 버티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해줌	1,2,3,4,5,7,8 일반적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원과 복지관의 서비스로 숨통이 트임	1,4,5,7 전형적
불안을 견뎌냄	코로나19로 극도의 불안을 경험했지만, 잘 견뎌냈다는 감사함과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1,2,6 변동적	

<표 4>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코로나19에서 아동의 내적 변화	시각장애아동의 발달적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잔존감각의 자극 결여로 인해 발달지연 되고 퇴행함	1,2,3,4,5,8 전형적
		에너지 발산 통로가 차단 및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낮밤이 바뀌는 수면 패턴 경험	2,4,6 변동적
코로나19에서 아동의 환경적 변화	시각장애아동의 심리사회적 변화	아동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 및 소외감이 심해짐	1,2,3,4,6,7 전형적
		학교와 복지관의 휴관 및 폐쇄기간 연장으로 사회연계망이 대폭 축소되는 단절을 경험	1,2,4,5,8 전형적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경험으로 일반학교에서 맹학교로 전학함	1,3 변동적

<표 5>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빈도
시각장애 학습 지원 욕구	시각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적절한 교구지원	비대면 수준별 개별화 학습 서비스 및 학습시기에 맞는 점자 교재, 키트 및 촉각 탐색 교육 필요	1,2,3,5,6,8 전형적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욕구	신체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1,2,3,4,5,6,7 일반적
	코로나19에 시행된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	코로나19에도 운영했던 복지관 서비스(1:1 학습, 치료, 점자정보단말기 교육)에 대해 만족함	2,3,6,7 전형적
	돌봄 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체계적인 돌봄시설, 활동보조 서비스 부족 등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형식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감 조성	1,2,3,8 전형적

1.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

1)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한계

(1) 시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의 부재 및 어머니의 필수적 관여

코로나19는 교육적으로 유례없는 전면 비대면 수업의 시대를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비장애 초등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특히 시각장애아동과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장애와 세상의 장벽으로 다가왔다. 시각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적합한 교육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각장애아동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과 답답한 상황에서 오는 무력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다. 양육을 책임지며 교수자의 역할까지 병행해야 했던 책임져야 했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필수적인 관여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버텨야 했다.

아이가 저시력인데 이제 처음에는 등교가 안 되다가 온라인으로만 뭔가 이제 콘텐츠 주면 그걸로 수업을 하고 제가 집에서 계속 봐주고 그랬는데 제가 오롯이 볼 수 있지만 너무 버겁더라고요. 학습을 제가 계속 다 해줘야 되니까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크게 확대해서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수업을 하잖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타자도 쳐야 되는데 우선 이거부터가 안 되죠. 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참여자 3)

교육방송 EBS가 급하게 편성됐어요. 교과서 내용 해주는 걸로요. 근데 점자책 페이지가 달라요. 페이지 찾다가 시간이 다가는 거예요. 미디어를 띄워서 설명해주는데 ‘어디지?’ 또 찾다가. 또 넘어가고 아이는 ‘머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야?’ 이러니깐 점점 힘들어 지더라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참여자 6)

(2) 시각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됨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위험하고 감염력이 높은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시각장애아동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자라는 명칭 하에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교육과 돌봄의 현장에서도 돌봄에서 마찬가지로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질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부모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불안과 염려를 가져왔다. 특히 시각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또한 시각장애아동이 감염취약자라는 염려 속에 지나친 의식과 시선으로 서로에게 깊은 소외감과 상처를 느끼게 했다.

일반학교를 다닐 때는 정안인 아이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수업 때는 거의 대부분 시청각 자유여서 제가 옆에 붙어서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설명을 다 해줬어야 됐어요. 배려요? 그게 뭐 '힘들면 안 하셔도 되요.'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교육에서 소외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شم쑑한 웃음] (참여자 1)

선생님들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처음이었으니깐 ○○를 보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1학년때는 활동지원 선생님이 항상 모니터링으로 해서 같이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로 활동지원 선생님이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니깐 담임 선생님이 오롯이 저희 ○○를 같이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계속 전면 등교를 하려고 하면 전날 '판단은 어머니가 하시는 건데 걱정되니깐 좀 천천히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하시니깐 계속 미루다 일반학교 다닐 때는 한번도 등교를 못 했어요. (참여자 3)

코로나 걸려서 학교도 못 가고, 애는 애대로 방치되고 오전에 또 일을 가야 되니깐,, 애들 학원 용돈이라도 반찬 값이라도 벌어야 됐어요. (참여자 7)

2) 양육에 작용한 변화 요인

(1)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속담에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말처럼 시각장애아동의 눈이 되어 자녀의 신체적 제약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살아가는 어머니의 양육의 부담감은 막심했다. 부모라는 이유로 숙명처럼 받아들여 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혹독한 양육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삶 전반의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이다 보니깐 물건이 똑같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옆에 도와주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양육 시간도 너무 길어지다 보니깐, 엄마로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너무 24시간을 계속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깐 좀 지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평생 돌봄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깐 사회생활이 차단되고 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부담스럽고요. (참여자 4)

그냥 데리고 나가기가 싫었어요. 아는 사람도 마주치기 싫고, 솔직히 아이가 아프다는 건 다 알아도 보여주기가 싫고, 사람의 시선이 꽃히니깐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니니깐 아이를 아픈데 데리고 나왔다는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니니깐... 그게 집중되는 게 싫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집 근처도 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집에만 있었어요. (참여자 2)

(2) 자녀 장애에 대한 걱정이 증폭됨

시각장애는 고열로 인한 안압 상승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견되지 않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하여, 취약 시설인 복지관 폐쇄 및 전반적인 일상의 단절로 인해 염려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학업을 졸업한 이후에도 장애 자녀는 성장에 따른 독립이 아닌 여전히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과업으로 여겨지며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단절은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명칭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는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아동과 양육자들은 사회적 재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감염이 되게 걱정되긴 했어요. 아프면 제일 안 되니깐... 저희 아이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어요. 그때 눈이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열도 많이 났거든요. 열이 나면 안압 같은 경우도요.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심하잖아요. (참여자 3)

기관 폐쇄, 장애인 복지관 취약 시설이잖아요. 기관 문 닫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취약시설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 취약 시설이 되는구나. 더 폐쇄 기간도 길어지고 더 이용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그걸 좀 경험한 거 같아요. (참여자 8)

우리 아이한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깐 그냥 끌어 올린다고요. 같이 우울해지니깐요. 그 고립감이 정말 코로나19로 너무 극대화돼서 정말 웃음도 안 나오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랑 정말 끝나야 끝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생각도 정말 솔직히 안 했다는 거 거짓말인거 같아요. 나중에 더 크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고 엄마가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미리부터 걱정이라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여자 4)

(3) 재발견한 사회적 지지의 경험

고난 속에도 행복은 있다(이호석, 2016)는 말처럼 막막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며 굳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나라의 지원과 복지체계 안에서 지원받고 있는 감사함과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험을 하였다. 앞으로 시각장애아동 및 부모에게 심리적 지원과 복지체제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스스로의 지지체계는 저를 믿는 거 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믿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애를 키울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그거 외에는 가족들의 응원, 가족들의 응원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나라의 지원, 학교 지원, 지역사회 지원과 함께 시각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지지체계가 되는 거죠.

(참여자 1)

00번 시각장애복지관 때문에 승통이 좀 트였어요. 다른 데 정말 다 문 닫았어요. 그때 문 닫지 않고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 다녔어요. 맹학교도 근처로 복지관도 계속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전화 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늘 신경써주셔서 감사했죠.

(참여자 7)

(4) 불안을 견뎌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복잡한 심정들이 뒤섞여 있지만 노력하며 순간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막연한 미래의 사회적 재난에 또다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대비하고 준비성을 갖춰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다. 아동들도 감염에 대한 방역을 숙지하게 되어 스스로 마스크를 챙기고 손을 닦거나 위생에 신경 쓰게 되었다.

진짜 아찔한데 또 그 시간을 지나오니깐 '어떻게 또 지났나.' 사람이 단순해서 이런 생각 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견디는 수밖에 없잖아요. 견디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거 같아요. 버텨내야지 또 이런 시간이 오잖아요.

(참여자 2)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좀 미리 대비를 해놔야겠다. 지금 당황하면서 지금처럼 반복할 수 없다. 뭔가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갈 때는 아이도 자기 마스크를 딱 챙기고 코로나19 때문에 1:1 수업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좋았던 것도 있었다. (참여자 6)

2.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

1) 코로나19에서의 아동의 내적 변화

(1) 시각장애아동의 발달적 변화

시각장애아동은 모든 형태를 촉각을 통해 얻는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유정희, 2003) 자극을 받아들이며 성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제한은 전반적인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시각장애 특성상 보행학습을 하며 사회적 자극을 습득하고 사회성을 학습하며 촉각과 청각에 집중하여 단절된 시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초 활동 저하로 체력이 약해지며 이전 어렵게 습득하였던 학습이 퇴행되는 절망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고립된 생활은 낮 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올빼미형 수면 패턴을 경험하거나 일상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안정적인 발달을 통한 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에 시각장애아동들은 자극 결여로 발달적 퇴행을 경험하였다.

신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 당시, 신체 활동 못한 것도 심해지고 시각장애아동들은 보행도 굉장히 중요해요. 걷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성장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깐 본능적이고 감각적이 두려움이 더 생기는 거 같아요. (참여자 8)

저희는 발전하기는 진짜 어려운데 퇴행은 또 금방 오고 [헛헛한 웃음] 단 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의사표현과 일상생활을 연습했는데 흐름이 딱 끊겼죠.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올라 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참여자 2)

아이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어려우니깐, 낮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깐 더

고립돼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잠이 더 없어지고 새벽 다섯 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조용하니깐 또 사회생활을 못하고 더 고립되는 느낌. 저희 학교 선배 어머니도 아이가 낮밤이 바뀌었다고... (참여자 4)

2) 코로나19에서의 아동의 환경적 변화

(1) 시각장애아동의 심리 사회적 변화

코로나19로 시각장애아동들은 장애의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일반학교의 생활에서 더욱 큰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비대면 수업은 타자를 치거나 화면을 시청하며 학업참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음성에 의존하면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시각장애아동들에게는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순간으로 돌변하였다. 장수연과 정제영(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수업은 정안인 학생들에게도 학업적 무기력과 낮은 학업 열의를 유발한다고 보고하는데, 음성에만 의존하며 참여가 이루어지는 시각장애아동들은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학업적 무기력과 신체적 한계를 재경험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더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감염취약자로 분류되어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감각기능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고, 복지관 이용의 제한으로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증진해야 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겼다. 결과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세계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증가한 휴대폰 이용 습관은 추후 장기적으로도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활동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엄청 우울해 했어요. 항상 심심해하고 그래서 휴대폰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휴대폰을 엄청 보는 데 그게 힘들었어요. 사용량 증가도 엄청 늘었고, 중독된 것 같아요. 또 친구가 없는 게 제일 불쌍해요. 전학을 했는데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가고 그룹 콜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시각장애인 분이셔서 잘못 전화 연결해서 또 연결이 안 되고 수업을 참여를 못하고 수업은 잠깐이고 또 휴대폰 엄청 보고 심심하니깐 (참여자 7)

아이에게 일반학교 교육을 시켰던 이유가 사회성 증진을 위해 간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단절됐잖아요. 단절이 돼서 한참 좋을 시기에 오히려 더 퇴화된 느낌. 외부 출입을 거의 안했던 거 같아요. 복지관도 휴관을 했다 다시

운영했다 들쭉날쭉 한 것도 있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었을 때, 몰아서 몇 시간 씩 갑자기 공부를 해야 하고 소화를 시켜야 하고 또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일단은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외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져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부재가 너무 아쉽죠. (참여자 1)

아이가 일반 통합 학교를 다니다가 왔어요. 여기 맹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거의 2학년은 그냥 집에서 보낸 것 같아요. 일반학교에서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수업을 해도 안 보이잖아요. 타자도 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참여자 3)

3.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 시각장애 학습 지원 욕구

(1) 시각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비대면 수업 지원 및 적절한 교구 지원

시각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다양하며 중복장애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교육의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준비되지 못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제공되는 학습 도구들은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급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아동들에게는 제대로 된 학습교구를 받았다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교구 지원이 필수적이며 맞춤형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졌다. 시각장애아동과 학부모는 학업 수준 및 장애의 특성에 따른 전화 수업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기존 수업을 전화로 대체하는 학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하게 키트 같은걸 보내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시각장애에 뇌병변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돼요. (참여자 2)

맹학교에서 전화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셨어요. 생각하는 과제도 내주시고 온라인에서 설명 없이 글씨만 나오는 수업보다 훨씬 나왔어요. 장난감 키트 같은 건 학습적인 거에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 또 고학년이다 보니깐 일대일 학습 서비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여자 1)

2) 사회서비스 욕구

(1)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욕구

코로나19 시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갈 곳이 없다는 제한된 상황에 대한 경험의 연속이었다. 복지관은 이들에게 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같은 시각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 및 양육자들이 유대감을 느끼며 감정을 공유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곳이기에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갈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아동들과 어머니들은 정체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밖을 못 다니고 집에서만 생활하니깐 아이가 답답하고 방학 때가 특히 좀 더 힘들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특강도 잠깐 있다가 끝나고, 이런 공백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크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냥 멍하니 있고 심심해하고 놀 수 있는 놀이 기구도 없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되게 재밌어했거든요. 그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2) 코로나19에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

코로나19로 인해 그룹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시각장애의 특성과 학년에 따른 수준별 1:1 수업으로 변환되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아동에게 보다 집중적인 학업적 증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맞춤형 1:1 수업은 시각장애아동과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학습자로서의 부담감을 감소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서비스로 경험되었으며, 추후에도 유동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1:1 수업으로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학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니깐 수준 맞춰서 듣거나 혼자 수업하면 제일 좋았어요.

(참여자 6)

(3) 돌봄 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준비되지 못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이전에도 불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사회적 지원 체도에 대해 당혹감을 많이 느꼈으며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돌봄 및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정보검색을 하고 찾지 않으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서비스가 있음에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접근성이 낮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으며,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무력감과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심각성으로 다가왔다. 또한 발달장애보다 소수로 이루어진 시각장애인에게 적용되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후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도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겪은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활동 보조 부모 돌봄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문자가 왔는데 격리 이전에 신청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청하려니 너무 복잡하고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제도라고 느껴서 형식적이라고 생각 들고 심각한 거 같아요. 장애인 수가 많으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시각장애는 소수니깐 정보 접근도 어렵고 더 세분화 되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8)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아동과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의 부재 및 어머니의 필수적 관여, 시각장애아동의 참여의 제한, 양육의 대한 심리적 부담, 자녀 장애에 대한 걱정이 증폭, 재발견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울 견뎌내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비대면 수업의 온라인

시스템 사용은 시각장애아동의 어머니에게 또 다른 장애와 세상의 장벽으로 다가와 지속적인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에서 시각장애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양육 책임자로 교수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시간을 버텨야 했다. 일반학교에서는 정안인 위주의 온라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활동지원사까지 동행해야 하는 시각장애아동의 입장에서 가정학습은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배려로 가장한 또 하나의 힘든 시간이었다.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각장애아동은 감염 취약자라는 또 하나의 낙인이 부여되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놀이, 교육, 치료 공간의 접근 등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상처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녀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짐을 덜어주고자 시각장애아동의 눈이 되어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버겁게 건디는 양육의 부담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막심해졌고, 일상생활의 변화와 불균형은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었다(Choi, 2018).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는 가족들의 응원과 사회적 관계망, 사회복지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지지를 다시금 경험하고 새삼스럽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장차 또 경험할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에 또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비가 필요함을 깨닫기도 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은 내·외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시각장애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간은 보행학습을 하고 사회성의 범위를 넓히며 잔존감각을 활용해 시각 결손을 충족시켜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어렵게 습득해 온 학습 능력은 해당기간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단절로 인한 영향력이 커졌으며(이태인, 박경현, 최세나, 2020) 학습단절은 곧 학습에 있어서의 퇴행으로 직결되어 이들로 하여금 뼈저린 절망감을 느끼게 했다.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주로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 시각장애아동들은 낮밤이 바뀌는 올빼미형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겪으며 일상 패턴의 균열(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은 물론 발달 지체와 퇴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장애의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일반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시각장애아동에게 음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참여의 장벽을 느끼게 하여 학업의 무기력과 신체적 한계를 재 경험시킴으로써 더 깊은 우울을 겪게 되는 힘든 과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 아동들은 또래관계의 유대감 단절로 자연스럽게 홀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세계로 더 많이 몰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디어 폭력이나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노출될 위험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UNICEF, 2020).

셋째,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시각장애 학습지원 욕구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욕구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준비기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시각장애아동은 전화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학습 교재로 키트를 제공받기도 하였지만 기존 공교육이 담당했던 역할을 가정에서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장애학생 및 교사가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비대면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손지영 외, 2022). 특수 교육대상자들에게 온라인 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로 특수 교육대상자의 개인적 어려움이 온라인 학습의 비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김대용, 최진혁, 2020),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아동은 원활한 온라인 학습에 관련한 사항들을 도와주는 촉진자가 필요한데(장혜승, 2020)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시각장애아동의 어머니는 학습 콘텐츠 접속, 원격수업시스템 활용, 마우스 및 키보드 조작 등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방적 형태로 수업이 제공되어 상호작용이 충분치 않은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수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거나 학습을 관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김현집, 신현기, 2021), 이러한 학습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에 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구축이 미비하였고, 온라인 학습을 위한 보조 인력 또한 제공되지 않아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전근배, 2020)와도 일치한다. 더욱이 시각장애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과 교사가 시각을 제외한 잔존감각들을 활용하여 직접 면대면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이들은 오로지 청각에 의존하여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신현서, 차향미, 2020).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는 줌(ZOOM) 수업 시 보이스오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이들 어머니가 화면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학습보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시각장애학생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김시준, 김주섭, 2022), 이들과 비장애아동과의 학습 수준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 20조는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맞추어 시설 정비 혹은 그밖에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아동의 특수성과 현실성이 반영된 적합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코로나19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욕구와 코로나19임에도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장애아가족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 정도나 특성에 따라 학령기 시각장애아동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수교육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고 텍스트파일 교재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서재경, 2009).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시설 및 기관들이

대책 마련 없이 휴관 또는 폐쇄되어 서비스의 공백 상태의 심각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특히 학령기 시각장애아동이 주된 시간을 보냈던 학교와 시각장애 복지관 및 치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축소되거나 이용 범위가 감소하여 가정학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 발달의 저해를 가져오게 되었고, 외부 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등 소극적인 여가 활동 중심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며 불규칙한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몇몇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코로나 방역을 준수하며 기존의 프로그램 형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1 개별 프로그램 방식이나 소규모 그룹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 제공방식을 변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고려하면서, 제공된 서비스는 시각장애아동과 어머니에게 잠시라도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이는 코로나 상황 등 위기상황에서도 아동의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각장애아동에게 학습 보조교재 지원,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한 안전 공간, 양육 돌봄으로부터의 부모의 휴식 지원 등 시각장애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욕구는 복지기관의 휴관 및 폐쇄로 인해 서비스 공급체계가 일시 중단되면서 돌봄 부담이 오히려 부모에게 전가되었고, 부모의 일상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은정, 박재연, 2022)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장애 관련 서비스는 신청주의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조향숙 외, 2021). 장애인 보호자 서비스 신청 경로의 확인과 접근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필수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보호자, 활동지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참여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책 마련의 미비로 인해 돌봄서비스 제공 중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돌봄제공자의 접촉이 필수인 시각장애아동에게 감염 위험성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대면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감소하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이렇듯 장애아동과 가족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백은 장애아동의 가중된 양육 부담에서 비롯된 간절한 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 및 추후 발생 가능한 사회적 재난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아동과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천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는 기존 복지제도 지원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전가와 돌봄 부담의 과부하는 가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국가가 개별화되고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돌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육과 자녀의 학습까지 담당해야 했던 부모는 높은 수준의 우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여(김영란, 2020; 이은환, 2020)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지지의 강화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는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야 하며, 가족 간 지지체계를 이루어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아에 국한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를 경증 장애아 부모에게도 확대하고, 소득기준의 유연함을 갖추어 모든 장애아동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역할의 유능감 회복과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감소시켜 주며,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지혜, 2021).

둘째, 장애아동의 특수성이 반영된 적합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시각장애아동의 특성이 고려된 개별화 서비스 제공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시각장애아동들은 학업과 정서적 측면에서 장애의 벽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으며 사회적 재난에는 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감염의 위험을 축소하면서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시간 활용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등의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 더욱이 시각장애아동의 발달이 퇴행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연령에 따른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은 개별화된 접근 및 유용한 복지서비스 활동에 참여 욕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축소하여, 복지 서비스가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아닌 적극 활용 가능한 지원체계라는 신뢰와 함께 복잡한 신청 과정으로 인한 이용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확실적인 정책이 아닌 시의적절하며 탄력적이고 특화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구된다. 더욱이 중복되는 서비스 내용들이 적절히 분배되는 조정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정상 발달 촉진과 코로나 이후에 겪는 발달 퇴행 시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서비스 수행 방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토대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특정 S지역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의 어머니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별 서비스 및 인프라의 차이의 가능성을 염두 하여 다양한 지역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을 통한 다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시열 (2000). 가정 환경과 아동 변인에 따른 시각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16(-), 49-79.
- 고용노동부 (2020). *우리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정책 모음집*. 서울: 고용노동부.
- 교육부 (2020).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세종: 교육부. <http://www.moe.go.kr/>에서 2021년 3월 15일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2020). *'코로나19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에서 2023년 2월 15일 검색.
- 김경애, 유예림, 이성희, 한효정, 김민정, 김민희, 임은미 (2020). *코로나 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진천군.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용, 최진혁 (2020).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 85-108.
- 김시준, 김주섭 (2022). 비대면 수업 상황 시각장애인 얼굴 위치 인식 프로그램 <Zoom Helper>.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829-830.
- 김영란 (2020).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36.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선, 이재림, 최정아 (2021).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 *인간발달연구*, 28(3), 139-165.
- 김유식, 정병철 (2020). 코로나19 상황이 전업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6), 567-578.

- 김은정, 박재연 (2022).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주 양육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1), 1-32.
- 김지현, 최영준 (2021). “코로나19 시기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비판사회정책**, 70, 101-132.
- 김지혜 (2021). 어머니의 양육불안, 우울과 시각장애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의 조절효과 검증. **시각장애연구**, 37(1), 135-160.
- 김현집, 신현기 (2021).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실태 및 운영 방안 탐색. **특수교육학 연구**, 55(4), 1-33.
- 문설화, 오은미, 유선영 (202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생 어머니의 변화된 양육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2(2), 162-174.
- 박경자 (2021).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아동 -19 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맞벌이 가정 어머니를 중심으로. **상담심리교육복지**, 8(2), 245-259.
- 배은정, 박경자 (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2(4), 445-456.
- 신현서, 차향미 (202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각장애학교 교사 수업 경험 연구. **시각장애 연구**, 36(4), 147-168.
- 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에서 2023년 2월 15일 검색.
- 서재경 (2009). **시각장애아동의 발달단계와 어머니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지영, 차현진, 구정아 (202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장애학생 원격수업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6(4), 279-305.
- 유승주 김용섭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실천 경험과 적용에 관한 근거이론. **발달장애연구**, 21(10), 27-49.
- 은기수 (2020). 코로나 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노동리뷰**, 2020(11), 35-49.
- 이보람, 이강이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공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교육 지원현황.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63-78.
- 이송희, 이병화 (2020). 코로나18 발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형과 정책 과제. **보건과 복지**, 22(3), 7-34.
- 이송희, 홍승주 (2021). COVID-19에 따른 장애아동 사회적 돌봄 과제와 지원방안은 무엇 인가?. **보건과 복지**, 23(3), 39-63.

- 이은환 (2020). 코로나 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414(0), 1-25.
- 이태인, 박경현, 최세나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현황. **학교사회복지** 52(0), 73-97.
- 이호석 (2016). **고난속에도 행복은 있다**. 서울: 흥익출판사.
- 장수연, 정제영 (2020). 교사 및 친구관계, 그릿, 학업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 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1(4), 203-234.
-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 사회정책**』, 68, 173-207.
- 전은지, 하정희 (2022). 시각장애 청소년을 둔 어머니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연구**, 38(1), 55-80.
-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COVID-19로 경험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7), 77-94.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정정호, 김선숙, 김희주, 장혜림, 김시아 (2021).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양육자의 양육경험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55), 153-185.
- 조향숙, 김민경, 최미영, 정영규 (2021).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울산.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장혜승 (2020).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주요국 교육정책과 시사점.” 『이슈분석』 139호.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Issued/view.do?poliIssueId=ISUE_000000000000937&menuNo=200046&pageIndex=에서 2023년 2월 15일 검색.
- 주해란, 한아름 (2021). 코로나 19 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영아기 어머니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209-227.
- 최윤경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 (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2020(12), 50-63.
- Brown, S. M., Doom, J. R., Lechuga-Peña, S., Watamura, S. E., & Koppels, T. (2020). Stress and parenting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hild Abuse & Neglect*, 110(2), 104699.
- Choi, E. A. (2018).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7(4), 193-219.

- Choi, Y.-H., & Moon, H.-J.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spouse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6), 407-424.
- Estabrooks, C. A., Field, P. A., & Morse, J. M. (1994). Aggregating qualitative findings: An approach to theory develop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4(4), 503-511.
- Gall, M.D, Borg, W.R. & Gall, J.P. (1996). *Educational research, an introduction*, 6th edn. New York: Longman.
- Hamner, T. J., & Turner, P. H. (19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a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re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2020). *COVID-19, The Broken Life of the Disabled like a Domino*. Monthly Issue, 395.
- Marchetti, D., Fontanesi, L., Mazza, C., Di Giandomenico, S., Roma, P., & Verrocchio, M. C. (2020). Parenting-related exhaustion during the Italian COVID-19 lockdow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5(10), 1114-1123.
- Miles, Huberman, & Saldana.(201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3rd. Thousand Oaks, CA: Sage.
- Pakpour, A. H., Griffiths, M. K., & Lin, C.-Y. (2020). Assessing psychological response to the COVID-19: The fear of COVID-19 scale and the COVID stress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9(0), 2407-2410.

- UNICEF. (2020). *COVID-19 and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Retrived April 15, 2020, From UNICEF Web Site: <https://www.unicef.or.kr/>
- UNICEF.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Retrived April 15, 2020, From UNICEF Web Site: <https://www.unicef.or.kr/>
- Yoo, K.-H., & Choi, H.-J. (2021). Effects of parental pressure and autonomy support on academic enthusiasm,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30*(3), 109-129.

<국문초록>

코로나19 시기의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복지서비스 욕구

전 은 지¹ · 하 정 희² · 김 지 혜³

¹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 ²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

³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복지 서비스 욕구의 주관적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 공문을 통해 모집한 시각장애아동의 어머니 8명을 면접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반구조화 질문지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에 따라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 어머니가 경험하는 교육과 양육의 특성에 따른 영역은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의 한계'와 '양육에 작용한 변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코로나19에서 초등학교 시각장애아동이 겪은 변화의 영역은 '코로나19에서 아동의 내적 변화'와 '코로나19에서 아동의 환경적 변화'이다. 셋째,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의 영역은 '시각장애 학습지원 욕구'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로 탐색됐다. **결론:** 코로나19 시기의 시각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심리사회적 경험과 특수한 욕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상담심리서비스와 복지 지원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코로나19, 시각장애아동 어머니, 양육경험, 복지서비스, 합의적 질적 연구